

#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 궤도 진입할까

### '막돼먹은 영애씨' '신의 퀴즈' 등 안착 검증된 콘텐츠·캐릭터 안정감 확보 배우·제작진 연속성 어려운 현실 문제도

외국에서만 보던 시즌제 드라마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내 방송사들은 제작비 등 여러 한계에도 나름의 창의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라는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려 노력한다. 국내에서 시즌제 드라마가 유리한 부분과,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할 때 필수적인 요소들을 짚어본다.

◇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의 역사  
국내 시즌제 드라마 시초로는 KBS 2TV '학교'를 꼽을 만하다. 1999년 시작한 이 작품은 2017년 7번째 시즌까지 이어지며 조인성, 김우빈, 이종석, 장혁, 김래원, 김민희, 배우나, 하지원, 최강희, 이요원 등 지금은 톱스타로 군림하는 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는 시즌17까지 제작된 tvN '막돼먹은 영애씨'. 이 드라마가 통련하는 힘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영애씨의 장기 연애사(史)와 결혼, 워킹맘으로서의 인생을 함께 지켜보고 겪는 '골수팬'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르극 체면을 표방하는 OCN은 '나쁜 녀석들', '신의 퀴즈', '보이스', '구해줘' 등 강렬한 색채의 시즌제 드라마들을 내놓으며 비교적 일찍 시즌제 드라마 시장을 선점했다.

최근에는 KBS 2TV '추리의 여왕'과 '동네변호사 조들호', MBC TV '검법남녀',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 JTBC '오리치자 와이키키'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도 시즌제 드라마 제작에 열을 올린다.

이밖에 tvN '아스달 연대기'와 JTBC '보좌관' 등 무게감 있는 작품들도 시즌제 방식을 채택하며, '에이틴'과 '연애플래 이리스트' 등 인기 웹드라마들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 "IP 안정성 확보에 유리...미디어 환경 재편 영향도"  
전문가들은 급격히 증가한 드라마 편수와 그에 따른 과당경쟁,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가 방송사들이 시즌제 드라마를 돌파구로 삼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짚는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최근 '방송작가' 159호에서 "톱스타와 인기작가, 거액을 투자해도 성공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증된 콘텐츠와 캐릭터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해 전작의



성공을 이어가는 게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역시 "시즌제 드라마는 콘텐츠 공급 과잉의 시대에 브랜드를 활용한 리스크 헤지(risk hedge, 위험요소 제거) 전략으로 매우 유용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에서 케이블과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로의 드라마 향유 플랫폼의 변화는 개인별 취향을 중요시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시즌제 드라마 향유 특성과 비슷하다"라고 짚었다.

한 지상파 드라마국 고위관계자도 7일 통화에서 "방송사 시즌제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IP(지적재산권)를 '멀티'로 써먹기 위한 전략구조"라며 "안정적으로 호응을 받은 작품일수록 시즌제로 제작하고 싶은 게 방송사 심리다. 시즌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가야 할 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드라마 편수가 많지 않았기에 지상파 등이 굳이 시즌제를 할 이유가 없었고, 배우·작가와의 (재)계약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시즌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원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 "기획부터 차별화된 캐릭터와 스토리 확장성 담보해야"  
이렇듯 최근 시즌제 드라마 제작이 활성화하지만 시스템이 정착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추리의 여왕', '동네변호사 조들호', '검법남녀' 등 여러 작품도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는 하기 힘들다.



시즌부터 시즌제로 기획된 작품들이 아닌 데다가, 완전히 차별화된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아직은 이른 단계다. 전작의 출연진과 제작진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해당 아이템이 시즌제에 적합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이 꾸준히 새 시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상파 드라마국 관계자는 "이야기가 계속 재생산되고 뻗어 나갈 구조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은 작품인데 전 시즌이 잘됐다고 무작정 시즌제로 갈 수는 없다. 특히 로맨스극은 커플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장르극 시즌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야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즌제를 할 수 있는 배우, 연출자, 작가의 상태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공 평론가도 "장기적인 종합조감도를 바탕으로 시즌별, 에피소드별 구성이 기획 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라며 "또 시즌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수립해 작가, 배우, 감독 등 제작팀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교수 역시 "시즌제 드라마 문제가 문제 제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스토리 월드의 단계별 구현과 그 과정에서 향후자의 참여와 체현에 기반한 팬덤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즌제 드라마가 계속 시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JTBC 첫 창사기획 다큐 'DMZ'

### 초고화질 1년간 촬영... 올 하반기 2부작 방송

JTBC가 첫 창사기획 특집 다큐멘터리 'DMZ' (비무장지대)를 선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DMZ'는 남북관계 큰 전환점을 맞은 한반도에서 금단의 땅이었던 DMZ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모습을 담는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전방에서 안보 현장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뿐만 아니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동해NLL에 이르기까지 DMZ 공간에서 사는 야생 동·식물 생태를 통해 '한국의 세립계'라 불릴 만큼 종 다양성이 풍부해진 DMZ의 생태학적 가치를 전한다.

또한 방송 최초로 북한 쪽에서 바라보는 DMZ의 모습, 66년간의 분단 기간 밝혀지지 않았던 남과 북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DMZ'는 4K UHD(초고화질)로 1년간 촬영해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한 영상미를 전한다.

제작진은 "DMZ를 알면 한반도의 현대사가 보이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미래가 보인다"라며 "6·25전쟁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탄생해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난 지금의 DMZ를 담아내, 평화와 긴장의 기로에 있는 DMZ의 존재의미를 묻는 시대적 화두를 던지겠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DMZ'는 총 2부작으로 제작돼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그에 앞서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밤 9시 30분 주요 내용과 제작 과정을 담은 프롤로그를 방송한다.

## 글로벌 팬 겨냥 'WE K-POP'

### KBS월드, 12일 첫 방송... 닉쿤·김신영 MC

KBS월드는 글로벌 K팝 팬을 대상으로 하는 K팝 전문 프로그램 '위 케이팝' (WE K-POP)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방송되는 '위 케이팝'은 매주 1팀의 K팝 아티스트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룹의 끼와 재능을 두루 조명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돕는다.

MC는 김신영과 닉쿤, 스트레이키즈의 승민, SF9의 인성이 맡는다. 매회 출연하는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K팝 알리기에 나선다.

1회는 스트레이키즈, 2회는 SF9과 퍼플랙, 3회는 여자친구, 4회는 엔티드 드림(NCT DREAM), 4회는 데이식스(DAY6)가 출연한다.

12일 오후 6시 30분 처음 방송되는 '위 케이팝'은 KBS 홈페이지와 MY K, KBS월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신사옥 이전 특집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신사옥 이전 특집생방송 고맙습니다 1부
10	0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퍼퓸(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검법남녀 시즌2(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신사옥 이전 특집생방송 고맙습니다 2~3부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	0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20 kbc 2019연중특별기획 2030 미래리포트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덕덕 365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55 오매 전라도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신사옥 이전 특집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1~2부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퍼퓸	05 스트레이트	00 출격명 특집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드라마 특선 국민의 일꾼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스포츠특선	15 나이트 라인 45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시간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뽕뽕뽕 뽕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마사와 꿈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원더볼스
09:40	세상이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15:30	뽕뽕뽕 뽕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40	세계테마기행 (초록빛 매혹 스코틀랜드, 아일랜드1부 스코틀랜드의 빛 아일랜드)
21:30	한국기행 (맛의 방주 1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시간	7월 8일 (음 6월 6일 丙午)
子	36년생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48년생 쫓대를 갖되 어느 쪽에도 차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60년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해야겠다. 72년생 속고해 왔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다. 84년생 절호의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81, 66
丑	37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며, 구관이 명관이다. 49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났다. 61년생 여러 가지가 동시에 속출하는 흐름이다. 73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5년생 복스러운 운세가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자. 행운의 숫자 : 88, 97
寅	38년생 실리 못지않게 관계도 중요한 법이다. 50년생 자신이 발언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62년생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조치가 결실을 낳으리라. 74년생 진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86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바쁘다. 행운의 숫자 : 84, 83
卯	39년생 가재는 게 편임을 알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51년생 자기당착에 빠질 수 있다. 63년생 방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75년생 관행에 얽매어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87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자. 행운의 숫자 : 40, 09
辰	40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52년생 조금만 더 이행하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64년생 착오를 일으킨다면 중차대함을 잃을 수도 있다. 76년생 역행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한다. 88년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65, 13
巳	41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53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된다. 65년생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 77년생 진정한 자신이란 형상이 따르는 법이다. 89년생 핵심 정곡을 찌르면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9, 52
午	42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 54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66년생 정성에 비례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78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풀러 갔다가 오히려 얽히게 된다. 90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리라. 행운의 숫자 : 22, 70
未	43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판세이다. 55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담하게 된다. 67년생 예상치 못한 마당에서 당혹스럽겠다. 79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써 사필귀정하리라. 91년생 전체적인 판국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도다. 행운의 숫자 : 96, 92
申	44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56년생 장담하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68년생 망각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크다. 80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불리해진다. 92년생 압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7, 38
酉	45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57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69년생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1년생 무의미한 정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93년생 뜻밖의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0, 40
戌	34년생 자생력이 근간을 이룬다. 46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58년생 공이 무너질까 두렵다. 69년생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1년생 무의미한 정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93년생 뜻밖의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5, 43
亥	35년생 자제히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47년생 절제를 밟게 된다. 59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몰려드는 이들을 가둬 차 있으나. 71년생 더불어서 행한다면 배가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83년생 분명히 이행하여야 향후의 처세에 지장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48,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